



지방의회 30주년, 서구의회가 거듭나겠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구민 대표기관으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구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방의회'라는 의회 미래상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1952년에 최초로 개원된 지방의회는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개원했다.

【2021년 서구의회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

구분	회기		주요안건
	기간	일수	
제229회 (임시회)	9. 2.(목)~ 13.(월)	12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30회 (임시회)	10. 13.(수)~ 22.(금)	10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제231회 (제2차 정례회)	11. 22.(월)~ 12. 24.(금)	33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 당면안건(조례안 등)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들을 결정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 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3. 주민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습니다.
4. 자치단체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5. 의회 표결 방법이 더 투명해졌습니다.

의회 동정

서구의회 “전체의원 서대구역 현장방문”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는 7월 26일 KTX서대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올 연말 정상운행을 앞두고 현장 확인과 주변시설을 둘러보면서 서대구역사 건설 사업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철도공단 현장감독관의 공사과정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1년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 개최

지난 7월 14일 서구청 구민홀에서 서구 구민, 서구의회 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를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을 전문 패널로 구민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방분권 추진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서구의회 방문

지난 7월 20일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를 방문한 신임 박정원 서부소방서장을 환영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환담을 나누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선 소방 관계자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고, 재난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